

한국 추상표현주의 1세대 김보현 화백 60여년 화업 조망

● '자유로부터 즉흥 환상세계로의 여정' 추모展...내년 2월17일까지



'추상A'



'뉴욕하늘언저리'



'새와놀다'

추상표현주의부터

세밀화, 즉흥구상 작품까지

시기별 30여점 선배

김보현 화백 서거 10주년을 맞이해 그의 예술적 유산을 조명하는 추모전이 마련됐다.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은 내년 2월17일까지 김보현 서거 10주년 추모전 '자유로부터 즉흥 환상세계로의 여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관이 소장 중인 300여점 작품 중 김 화백이 생애 동안 다양한 예술적 변화를 거치며 만들어낸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김보현은 도미(渡美) 이후 60년의 긴 시기 동안 시기별 다른 양식의 작품을 펼쳐왔다.

오랜 시기 작업을 해오면서 그는 일관되게 '자기 내면의 자유와 자아성찰'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해왔다.

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자유로운 추상 작업부터 세밀한 묘사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의 모든 작품에는 세상을 향한 자유로운 몸짓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녹아있다.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 세계를 ▲자유를 향한 외침 - 추상표현주의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세밀화 ▲안식을 위한 즉흥 구상 3개 시기로 나눴다. 1950-60년대 추상표현주의부터 1970년대 세밀화, 1980년대 이후 즉흥구상 작품까지 다채롭다.

첫 번째 섹션은 1955년 미국 뉴욕에 정착한 후 한국의 고향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담긴 추상표현주의 시기 작품을 선보인다. 어두운 배경 위 밝은

색채를 빠르게 거칠게 칠해 넣은 것이 특징이다.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자유를 향한 외침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섹션에선 1970년대 추상표현주의를 벗어나 세밀화 시기 그린 작품들을 소개한다. 그는 색연필을 사용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이 지닌 생명력과 에너지를 세밀한 묘사로 끌어냈다. 이 작업은 그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으며, 일상 속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극사실주의적 접근으로 스스로의 자아를 성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선 극사실주의 경향에서 벗어나 다시 대형 캔버스 작업을 시작한 1980년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980년대 추상 작업과 다르게 이 시기에는 대형 캔버스에 자신이 꿈꾸던 낙원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원색과 윤곽색 색조로 환상적인 세계



를 보여준다. 즉흥 작업을 통해 심적 고통을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순간을 화면에 담았다.

조선대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김보현 화백의 60여년 작품세계를 하나의 서사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깊은 예술적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최명진 기자

'ACC신년음악회' 내년 1월17일 예술극장1



빈 소년 합창단 @Lukas Beck

'빈 소년 합창단'과 2025년 새해를~

"520여년 역사를 지닌 소리의 미술사 '빈 소년 합창단'과 행운의 2025년 새해 맞이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내년 1월17일 오후 7시30분 ACC 예술극장 극장에서 ACC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공연을 개최한다.

2025년 창립 527주년을 맞이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와 전통,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합창단이다.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소년 시절 빈 소년 합창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모차르트가 지휘자로 함께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5년 ACC를 시작으로 서울·부산·익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한다.

빈 소년 합창단은 이번 신년음악회에서 '슈트라우스 포에버(Strauss For Ever)'를 주제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곡과 함께 슈만, 멘델스존, 슈베르트, 브람스 음악을 들려준다. 또 스위스 민요와 크로아티아 민요 등 세계 전통음악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 음악으로 무대를 꾸민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인 단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단원들이 함께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불러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선숙 ACC재단 사장은 "세계 곳곳에서 참여한 소년 소프라노들이 파랑새처럼 따스하고 기쁨 있는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날 것"이라며 "세계 최고 명성의 합창단 공연으로 힘찬 2025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ACC 신년음악회 관람권은 R석 6만원, S석 4만원이며 ACC재단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헤이즐작 '빛 고을의 자취'

디지털아트컬처랩 '광주, 빛을 품다'

27일까지 G.MAP서 제작 발표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오는 27일까지 2024 디지털아트 컬처랩 전시 '광주, 빛을 품다'를 선보인다.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의 위

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작 거점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디지털아트 분야 창작자료를 육성하고 지엽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작품 창작 기획과 기술적인 면에서 향상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L

G헬로비전, 닷컴, 사일로랩 등 문화예술 전문기업 임직원이 컬처랩 작품 제작 멘토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디지털아티스트 신진작가(프로젝트랩) 10개팀과 작가를 꿈꾸는 인큐베이팅랩 8개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민족민주화 대성회 "박관현 동지여"

전남대 박물관, 내년 1월3일까지 '이기원 초대 개인전'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1980년 5월 '민족민주화 대성회'의 역사적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1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3일까지 이기원 작가 개인전 '민족민주화 대성회: 박관현 동지여'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과 함께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를 기리는 작품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했던



진실의 현상이 캔버스, 찢겨진 나무 합판, 종이 상자 위에 실험적이면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또한 김남주 시인이 박관현 열사에 바친 헌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활자가 아닌 묵상의 흑백 이미지로 보여준다. /김대기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